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부활주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 페루는 이제 Covid-19 상황도 많이 안정화되어 마스크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정상과 같이 생업에 돌아간 모습들이 많은 활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 참으로 감사할 나름입니다. 이제 저희 센터교회에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어 그런 성도들의 활기찬 모습이 참으로 보기도 좋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선교편지에도 언급했던 Santa 라는 자매는 결국 42 살의 나이에 Sandy(13), Leandro(12), Tamara(6) 그리고 Sam(4) 4 명의 어린 자녀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미안하다”며 평안한 모습으로 떠났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4 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나날이 새로운 성도들을 불러모으시는데 이제는 성전과 주일학교의 의자 및 책상 등 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3 월에는 새로운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Elizabeth 이라는 노년의 성도가 남편과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중고등학교 교사이자 남편은 대학 교수이며 평생을 카톨릭 신자로 살았으며 그것도 최근 20 년은 성당의 전도부장으로 섬겼 왔던 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된 후 저희와 함께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겠다는 고백과 함께 감동적인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Giovanna 라는 다른 중년의 성도는 젊은 시절 수녀가 되기 위하여 수도원에서 신학까지 마쳤던 분인데 이제야 말씀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간증을 함께 나눈 분입니다. 특별히 저희 센터교회가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성당의 전도부장으로 또한 평생을 카톨릭 신자로 살아왔던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센터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특별히 김혜린 선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에는 지속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 월부터는 중고등학생부 예배를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일꾼과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교센터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중심으로 주일마다 남쪽에 위치한 Huaraz 라는 도시로부터 성도들을 픽업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과 함께 북쪽의 여러 도시 분들이 교회에 참석하려 하여도 차량의 부족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늘어나는 성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중고 미니버스(30-35 인승)가 필요한데 함께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하루속히 센터에서 기독교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현재 센터에서 기독교학교가 시작되기 위하여 담장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장공사가 마무리되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센터교회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모이고 있는데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 위해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날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단기선교팀을 받을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6 월과 7 월에 있을 단기선교팀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한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5. 교회의 부흥으로 인한 미니버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저희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고산병으로 인하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저 산지대로 내려가 쉬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필요한 여건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